

11일 토요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고 더웠지만 바람은 불었다.

제목 : 구기대회와 오카리나

오늘 학교에서 4학년 구기대회 본선을 했다. 우리 4-1은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왔다. 4학년 구기대회는 피구로 하는 것이었다. 본선 경기에 올라온 4반은 1반부터 9반 중 1반, 2반, 6반, 9반이었다.

예선 경기는 1~4반과 5~9반으로 나뉘어서 있었는데 우리 1반은 모두 이기고, 2반은 2번, 6반은 3번 9반은 모두 이겼다. 그래서 우리들은 1반이나 9반이 이길 줄 알았다.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였다. 우리는 처음으로 6반과 붙었다. 우리 반은 6반에게 졌다. 1반만 27도 바로 끝나는 것이었다. 나는 너무 섭섭하고 아쉽고, 속상했다. 또 2반과 9반을 경기에서 2반이 이겼다. 우리 너무 놀랐다. 또 6반과 2반을 경기 예선 6반이 이겼다. 난 나중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6반을 꼭 이길 것이다. 우리는 이 아쉬운 마음을 아이스크림으로 달랬다. 어쨌든 이번이 우리 1반이 너무 자만했음지도 모른다. 어쨌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. 다음에는 우리 반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. 결과를 못 받아드리던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반칙을 셋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다.